

없다.

그밖에 많은 양의 광배식화불에서 보이는 특이한 의상 화려한 장식성은 일반사원 것과는 다른데 이것은 궁실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 생각된다.

금동삼존판불은 당(唐)의 정관원년(貞觀元年·六七二年) 명불제자 영조상삼존진불(佛弟子耶瑛造像三尊佛)과 일본의 백봉시대(白鳳時代) 전반기에서 후반에 이르는 사이에(七세기말—八세기초) 유행하던 압출불(押出佛) 형식이 같다. 백봉시대의 압출불 및 진불 그리고 법흥사 벽화에 안압지 출토 금동삼존판불과 같은 형식 같은 양식이 크게 유행하는데 여기서 통일신라 불교미술이 일본 백봉시대 불교미술에 끼친 강한 영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외 여러 형식의 화불, 천인상, 주악천인상, 사리장래상(舍利將來像), 신장상, 천개(天蓋) 등 종래에 보지 못하던 다양하고 새로운 도상(圖像)들이 출토되어 통일신라 불상연구에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출토 와전(瓦搏)의 제문제

김성구

와전은 점토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마(瓦窯)에서 구워낸 일종의 건축부재이다. 지붕에 기와를 잇는 것과 전을 사용하는 풍습은 고대 동양 건축의 하나의 특색으로서 중국의 진한시대(秦漢時代)부터 이미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한사군의 설치에 따라 삼국시대초기에 유입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서 각각 특색있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세 종류의 양식이 하나로 복합되고 또한 성당문화(盛唐文化)의 외연적인 지극에 힘입어 독자적인 와전공예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황금시대라 칭할만큼 전반적으로 문화의 개화기를 맞이했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비단 와전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장 많이 남아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와전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통일신라 와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제외되다시피 하여 당시의 전체문화에 있어서의 분야별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안압지 및 주변유적지인 동궁(東宮)에서 출토된 와전류는 파편을 포함하여 二四,〇〇〇여점의 방대한 양이다. 안압지의 조성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문무왕(文武王)一四년(六七四)에 시작하여 문무왕 一九년(六七九)에 이룩된 것으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와전류는 고신라와 고려시대의 유품으로 볼 수 있는 四〇~五〇여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통일신라직후부터 통일신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二六〇여년간 사이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통일신라와 와전의 집합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와는 지방에 있는 위치에 따라 기와의 모양도 다르고 명칭에도 차이가 있다. 그것은 지방을 넘어 기와골과 기와등을 형성하여 빗물과 적설을 방지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원와. 평와가 기본이 되지만, 이의 끝기와에 원형 및 장방형의 수판(垂板)을 부착하여 문양을 새기는 원와당 및 평와당이 하나의 장식성으로 미술사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 용마루의 양단을 장식하는 치미(鵝尾), 합각마루에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귀면와, 마루를 쌓아올리는 적세(堤瓦), 미루와 기와골사이를 마감하는 면와, 그리고 특수와로는 타원와, 우와(隅瓦), 곱새기와 등이 있다.

전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기단주위나 옥내외의 바닥을 까는 부전, 축벽이나 단을 쌓기 위한 벽전으로 대별할 수 있고 그 모양에 따라 방형, 장방형, 삼각형으로, 문양별로는 무문전, 연화문전, 쌍룡(雙鹿)보상화문전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종류를 통해서 볼때 와전은 전물을 짓기 이전에 미리 용치(用處)의 구별을 계획하여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와전에 시문된 주요한 문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와당은 연화문이 주체적인 문양으로서 삼국시대의 단판양식을 계승하여, 복합하는 계속성을 보이면서 六七九년을 전후로 하여 퇴화하여 소멸하고, 통일신라 직후에 삼국기 양식의 복합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현출하는 신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단판의 변형계열인 세판 그리고 복판, 중판, 혼판의 새로운 양식적인 발전을 이룩한다. 이 같은 현상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삼국간의 문화적 복합에서 기인됨은 물론이다. 통일신라 연화문 와당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중판의 출현이다. 이 양식에 의하여 연화문 자체의 변형은 물론이고 타문양—보상화문, 동물문—과 조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내장식은 물론 자방의 변형을 초래하여 장식성이 극대화하였다.

다음의 주요한 문양은 보상화문이다. 보상화문은 전의 추된 문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원와당의 장식문양으로 채용되어 연화문 위주의 단순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 외에 쌍룡문, 기린문, 사자문, 가릉빈가

문 등의 사상적(瑞祥的)인 동물문양이 등장한다.

평와당은 아직까지 삼국기의 발전예가 없다. 통일신라 직후에 보상화문전과 함께 거의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당초문이 주요 문양으로 시문되고 있다. 그리고 원와당에 시문되는 쌍룡문, 기린문을 위시하여 용문, 비천문, 화조문, 괴운문등이 새로운 장식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전의 주요한 문양으로는 쌍룡보상화문으로 전의 상면에 보상화단을 시문하고 4우(四隅)에는 분화(分花)를 배치하고 때로는 측면에 쌍룡문을 시문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외에 연화문, 초화문등이 채용된다.

이상과 같이 안압지 출토 와전에 대한 개략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평와당 및 보상화문전의 새로운 출현과 다채로운 문양의 전개는 무슨 이유였으며, 연화문의 경우 삼국기적인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에서 왜 장식적인 변화를 겪어야 되는냐, 이러한 다종다양한 문양의 내용이란가 새로운 문양에 따른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와전의 위치는 어떤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의 제기를 받는다. 그것은 통일신라 직후에 조성되는 안압지 및 동궁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연유되는, 복합성을 띠는 다양성에서 우선 찾아야 되겠고, 평와당, 보상화문전, 그리고 특수와의 등장에 따른 건축양식의 변화에서, 당시의 불교문화의 측면에서, 상층문화가 요구하는 사회적 측면에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안압지 출토 와전 가운데 의봉 4년(儀鳳四年..六七九) 명평와와, 조로(調路) 2년(六八〇) 명보상화문전 편의 출토로 말미암아 통일신라의 와전의 편년설정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음은 물론 습부(習部) (府), 한지(漢只) 등의 명문와를 통하여 와전의 새로운 주요관계와 몇가지의 기록을 통하여 문양의 창출행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함으로써 당시의 찬란한 문화적 배경을 추출할 수가 있다고 본다.

(국립경주박물관)

이상은 지난 一七八二年 二月 二十日 國立中央博物館과 韓國美術史學會共同主催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雁鴨池」 학술세미나에서의 發表論文要旨이다.